

LCI 문화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배철웅*

대전관저중학교

강용구

공주대학교

송해성

공주대학교

Bae, Chulwoong, Kahng, Yong-Koo & Sohng, Hae Sung. (2012). Effects of the LCI culture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tests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Modern English Education*, 13 (4), 271-29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e program titled the language-culture integration (LCI). LCI is based on the theme-based model from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used to teach culture to middle school student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a middle school located on the outskir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72 and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was low-intermediate according to the score of the national diagnostic test.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 was employed for the pretest and posttest to measure the change in the participants' cultural sensitivities. In addition,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English ability, two national academic achievement tests were used for the pretest and posttest.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of ISS and improvement of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test scores. Additionally,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showed that students felt more comfortable when interacting with native speakers after the LCI class.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LCI was helpful for improving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and helping students to be more open-minded towards other cultures. Moreover, students were highly motivated not only to learn American culture but also to learn English through the LCI class.

[culture/CBI/theme-based model/Intercultural Sensitivity/
문화/내용중심 교수법/주제중심모형/문화간 감수성]

* 제1저자: 배철웅, 공동저자: 강용구, 교신저자: 송해성

I. 서론

Tyler(1871)는 문화를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p. 1)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언어는 문화 속에 있는 일부분인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언어를 내포하고 언어는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언어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는 학습 되고 변화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생활방식, 종교, 가치관에 관한 독특하고 관련성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Damen, 1987).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표언어가 속해 있는 목표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어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목표언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관습, 생활양식 및 사고 방식 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가운데에도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 더불어 2009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호[별책 14]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외국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4)라고 되어 있어서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7)에서는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문장의 길이로 구분하고 있지만 2009개정교육과정부터는 문화를 소재 항목에 통합하여 교과서 집필 시, 문화가 포함된 소재를 참고하여 내용을 집필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문화와 언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문화를 알면 언어를 잘하게 된다는 주장이(Anstey & Bull, 1966; Lado, 1964; Rivers, 1981; Sapir, 1921) 있다. 이러한 주장은 스키마이론(Schema theory)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의 배경 지식은 문화에 의해서 제공되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문화적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으로 요청된다(Garner, 1988; Seelye, 1994). 또한 문화소양(Cultural Literacy)은 개인이 사회 문화적 소통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지식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문화소양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Hirsch, 1987). 그러므로 문화교육은 우리나라와 같은EFL 환경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영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언어의 네 가지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외국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며 학생들이 융통성 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문화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문화를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언어능력과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로서 언어 문화 통합(Language-Culture Integration, LCI)이라는 문화수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 교수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LCI 문화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LCI 문화수업을 받지 않은 반의 학생들은 문화간 감수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LCI 문화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LCI 문화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영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와 영어교육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미문화에 대한 태도와 영어성취도는 서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그 예로는 미국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영어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Hansen, 1981; Oller, Baca & Vigil, 1977).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습태도와 영어능력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영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어성적이 높을수록 한국과 미국문화 구별을 잘하며 여러 상황표현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하였다(박은희, 2006; 방은정, 2006; 이담, 2007; 이효웅, 오준일, 2000; 정호진, 2006). 위 연구의 시사점은 학습자와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이 학습효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영어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지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에는 문화여담(Cultural Aside), 문화동화(Cultural Assimilation), 문화캡슐(Cultural Capsules), 속담(Proverbs), 듣고 행동하기(Audio-Motor Unit), 역할극(Role Play), 단막극(Mini Drama), 노래와 춤 등 많은 방안이 있다(강용구, 김종선, 2004). 문화여담은 수업 중 본문과 관련되는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수시로 간단하게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문화동화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의 내용을 보여주고 가능한 정답 중 학생들이 정답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두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문화캡슐은 두 문화 가운데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비교, 설명하는 방법이다. 속담은 영어권 문화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역할극과 단막극 등은 학생들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오해를 포함하는 내용을 극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문화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밖에 노래와 춤 속에도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가 포함된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문화를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화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된 이유로써 이도수(2004)는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교재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박이영(2009)도 영미 정신문화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하여 언어와 문화 통합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언어문화 통합지도를 위한 교수방법 개발과 학습모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문화지도방법, 교수방법개발, 학습모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언어 속에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함께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LCI라고 하는 문화수업 교수방법을 구안하게 되었다.

2. 내용중심 교수와 LCI

“언어 문화 통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LCI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수업의 이름으로서 내용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 가운데 주제중심모형(Theme-Based Model)의 형태를 띠고 있다. CBI는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교수 내용을 목표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CBI에서 언어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며 학습자들은 외국어로 된 흥미로운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elce-Murcia(2001)에 의하면 CBI는 내용 추구(Content-Driven)와 목표언어 추구(Language-Driven) 정도에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이 분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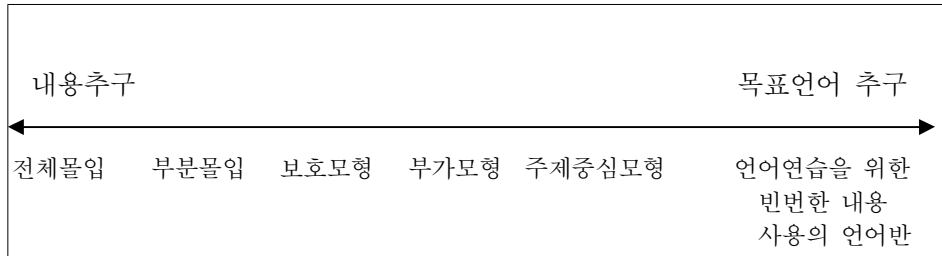


그림 1 내용과 언어 통합의 연속선(Celce-Murcia, 2001, p. 305)

위 그림 1에서 몰입모형(Immersion Model)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L2학습자가 수학, 과학, 미술, 음악과 같은 정규 교과목을 L2로 학습함으로써 교과목의 내용과 목표언어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이다. 몰입모형은 L1을 습득한 방법처럼 L2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언어능숙도, 입시위주의 수업, 학급당 과도한 학생 수, 학생들 간의 수준차이 등 여러 현실적인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보호모형(Sheltered Model)은 수업내용이 모국어가 아닌 L2로 진행될 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표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영어를 L2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가 같은 학교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기 위하여 미리 언어에 대해 보호 받듯이 정규 교과과정에 적용되는 내용과 언어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L2 학습자들은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부가모형(Adjunct Model)은 수업 내용과 목표 언어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며 언어수업 과정과 학과수업 과정을 동시에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언어실력은 정규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약간의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언어 과정을 부가적으로 듣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교사는 2인(언어교사, 교과내용교사)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내용과 언어가 따로 분리되어 시행된다. 이 모형의 특징은 배우는 수업내용과 언어 사이에서 목표와 과제의 조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주제중심모형(Theme-Based Model)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를 선택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목표 언어 활동의 추출을 통해 언어 습득의 네 가지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고 언어와 내용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학습자들의 언어능숙도와 상관없이 어떤 수준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할 수 있어서 수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중학교 학생의 언어능숙도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BI의 여러 형태 가운데 주제중심모형을 중심으로 한 LCI 문화수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가 EFL상황에 있고 언어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학업성취도가 낮고 제한된 영어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에 처해 있는 학생일수록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목표언어를 추구하는 주제중심모형이 효과적이고 학업성취도가 높고 목표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능숙한 학습자일수록 몰입모형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LCI 문화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LCI 문화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갖도록 하고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둘째, LCI 문화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타 문화에 대하여 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며 자신의 문화를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LCI 문화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문화간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LCI문화수업을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3. 문화간 감수성

Chen과 Starosta(1997)는 문화간 감수성을 “문화간 의사소통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향상시키는 문화적인 차이들 이해와 식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키는 개인의 능력”(p. 5)이라고 하였으며 문화간 감수성의 구성요소를 자존감(Self-esteem), 자기 조정력(Self-monitoring), 열린 마음(Open-mindedness), 공감(Empathy), 상호작용 참여(Interaction Involvement), 판단보류(Non-judgment)의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의사소통에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며, 자기 조정력은 타 문화와의 상호 작용 시 타협, 감정적 호소, 자제 등과 같은 전략을 잘 구사하는 능력이다. 열린 마음은 문화간 접촉 시 적절할 때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공감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 투영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상호작용 참여는 문화적 맥락에서 얼마나 잘 반응하고 인지하며 주의 깊은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판단보류는 문화간 의사소통 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문화간 감수성을 검증하는 도구 중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다. 첫째, Bennet(1986)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단계(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를 바탕으로 하여 Hammer와 Bennet(1998)이 만든 측정도구인 문화간 발달 목록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이 있다. 둘째, Chen과 Starosta(2000)가 만든 문화간 감수성 지수(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 검사지가 있다. IDI는 ISS와 비교해 볼 때 문항수가 2배 이상 많고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며 중학생의 학습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ISS를 사용하게 되었다. ISS는 부록 3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개의 문항은 크게 5개 항목인 상호작용 참여(Interaction Engagement), 문화차이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 상호작용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ce),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상호작용 주의(Interaction Attentiveness)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은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으며 각각의 문항 앞에 ‘5=매우 동의한다; 4=동의한다; 3=잘 모르겠다; 2=동의하지 않는다;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Likert 유형의 5점 척도 중 본인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각각의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 4, 7, 9, 12, 15, 18, 20, 22번 항목은 다른 문항과는 반대로 응답을 해야 설문지의 응답자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Chen과 Starosta(2000)의 문화간 감수성 검사지 구성

항목	문항 번호
상호작용 참여	1, 11, 13, 21, 22, 23, 24
문화차이 존중	2, 7, 8, 16, 18, 20
상호작용 자신감	3, 4, 5, 6, 10
상호작용 향유	9, 12, 15
상호작용 주의	14, 17, 19

Chen과 Starosta(2000)의 문화간 감수성 지수 검사지인 ISS는 미국학생과 독일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 평가에서 .58-.79의 내적 일관성 값을 얻음으로써 진단지에 대한 문화간 신뢰도를 검증 받은 바 있다(Fritz, Möllenberg & Chen, 2002). ISS를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서 K. J. Kim(2003)은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문화, 동기, 언어의 유창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한편 성별과 전공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문화간 감수성과 동기는 언어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는 내적 동기가 낮을수록 문화간 감수성도 낮은 수준을 보였고 외적 동기와 문화간 감수성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문화간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외국어 학습의 내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언어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외곽에 소재한 G중학교 3학년 학생 중 2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 학급은 인원이 각각 36명이고 남녀 혼합반이며 언어능숙도는 국가수준 진단평가에 의하면 중하수준 이었다. LCI 문화수업의 운영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7개월이었으며 수업은 1주일에 1시간씩 실시되었고 총 30차 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표 4). 실험반에는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두산동아, 김성곤외 7인)와 함께 각 차시에 LCI 학습활동지를 활용하여 문화를 주제로 한 LCI 문화수업을 하였고 통제반에서는 실험반에서 사용한 동일 교과서만 이용하여 수업을 하였다. 문화교육과 영어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에는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사후검사에는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영어시험지를 각각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이 모두 선다형 30문항과 서답형 5문항 이었으며 선다형은 각 문항당 2.5점을 서답형은 5점씩을 주어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였고 서답형은 학생의 문항에 대한 반응에 따라 부분점수가 있었다. 그리고 실험반과 통제반의 문화간 감수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en과 Starosta(2000)가 만든 ISS를 번역한 한국어판 문화간 감수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부록 3).

영어 학업성취도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이 동질집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영어 시험지를 사용하여 두 학급의 동질성 검사를 하였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SS 18.0을 사용한 사전검사의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80, p=.936$).

표 2
사전검사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실험반	36	55	22.97	.080	.936
통제반	36	54.56	23.85		

$p<.05$

2. LCI의 수업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LCI의 수업모형은 다음 표 3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학생들이 문화간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간 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저자들이 Kolb(1984)의 경험학습모형을 참고로 하여 개발하였다. 경험학습모형은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반응(Response), 참여(Participation)의 4단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기술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Knowing About)이며 문화의 산물이나 실제에 관한 지식인 문화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문화지식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단계이다. 해석은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중요한 문화적인 관점(Cultural Perspectives)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것이고 문화적인 모든 양상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태도, 믿음 등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반응은 자기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학습자와 관련된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자기인식을 하는 단계이다. 참여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며 문화적 사실(Cultural Practice)을 습득하고 목표문화권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적응하거나 융화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로부터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합한 문화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표 3
LCI의 수업모형

절차 (시간)	교사	학생
도입 (5분) (문화복습)	인사 한담 이전시간 문화수업 복습 학습목표소개	인사 한담 이전문화수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오늘의 학습목표 읽기
전개 (33분)	사전문화활동 (문화방아쇠) (7분)	문화퀴즈 사진, 동영상, 교수자료 문화퀴즈에 대한 답변 LCI 학습활동지 I
	문화활동 (문화인식) (13분)	문화정보를 포함하는 듣기, 읽기 자료를 가지고 학습. 또는 그룹활동 -짝활동(정보격차 활동) -단체활동(그룹토론)
	사후문화활동 (문화공유) (13분)	문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그룹 발표(문화공유) 국가간 같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토론하기 LCI 학습활동지 III
결론 (7분) (문화통합: 문화에 대한 평가)	문화질문과 답변 평가 (형성평가) 과제안내	LCI 학습활동지 VI에 답하기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입단계에서는 약 5분 동안 인사(greeting) 및 한담(small talk)과 이전 시간에 배운 문화수업에 대해 복습 하는 부분이다. 수업의 전개단계는 보통 사전문화활동, 문화활동, 사후문화활동 단계로 나누어진다. 사전문화활동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이 부분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짧은 퀴즈, 그림, 동영상 등의 수업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문화활동은 문화에 대한 인식 단계로서 정보격차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 언어 게임 등을 활용한 짝 활동을 하거나 수업시간의 주제와 관련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룹 토론을 하는 단계이다. 전개 마지막 단계인 사후문화활동은 문화공유 단계로서 목표문화와 학생들의 문화 사이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다같이 함께 공유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결론(Consolidation)은 문화통합(Culture Integration) 단계로 본 시간에 배운 문화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학습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이다. LCI 문화수업을 위해 부록 1과 같이 LCI 학습활동지를 사용하였고 LCI 문화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동기부여 도장판(Motivational Stamp Board)과 도장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퀴즈를 맞추거나, 문화공유 시간 발표에 참여를 하는 등 수업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칭찬 도장을 찍어주고 30개의 도장을 채운 학생에게는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서 상점을 부여하거나 소정의 상품을 주었다.

3. LCI 문화수업의 실제

실험반과 통제반을 대상으로 실험반에는 영어교과서와 더불어 LCI 학습 활동지를 사용하여 CBI의 주제중심모형인 LCI 문화수업을 하고 통제반에는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다. 이 LCI 문화수업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 하도록 돕고,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어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향상 시키는데 있었다. LCI 문화수업의 주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소재와 연관 되어있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아래에서 보는 표 4와 같다.

표 4
LCI 문화수업의 주제

차시	내용	차시	내용
1	문화간 감수성지수 검사	16	식사예절
2	문화	17	팁
3	예절(적절한 행동)	18	경청의 형태
4	고정관념	19	개인공간
5	역사 1	20	실례합니다.
6	역사 2	21	감사합니다.
7	휴일	22	시선을 마주침
8	교육	23	문잡아주기
9	지리	24	악수
10	음식	25	의성어
11	영화	26	속담 1
12	음악	27	속담 2
13	애니메이션, 만화	28	콩글리쉬 대 영어
14	스포츠	29	미신 1
15	제스처	30	미신 2

LCI 문화수업에서는 우선 1차시에 학생들의 문화간 감수성지수 검사(ISS)를 실시하였다. 이때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부록 3에 있는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씩 읽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었다. LCI문화수업의 주제는 문화란 과연 무엇인지(2차시), 나라마다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고 올바른 예절인지에 대해서 기본 학습을 하였다(3차시). 이어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4차시), 역사(5 6차시), 휴일(7차시), 교육(8차시), 지리(9 차시), 음식(10 차시) 등을 학습하였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주제와 목표문화와 목표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차시별로 지도 하였는데 학생들은 특히 교육(8차시), 영화(11차시), 음악(12차시), 만화(13차시), 속담(26 27차시), 미신(29 30차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차시에는 교과서 내용 중

특별단원(Special lesson)으로 “What's in a Name?: U.S. Place Names”에서 Los Angeles, New York, Athens 등 미국의 지명과 관련된 유래를 다루고 있는데 흥미를 느꼈으며 한국과 미국의 지명(Place Names), 지리(geography), 수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언어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으로서 15차시에 제스처를 주제로 한 수업에는 제스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습을 하니 효과가 있었고 22차시에는 시선을 마주침에 대해서 살펴 보고 언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 보지 않으면 본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미국문화와 눈을 쳐다 보면 무례하게 생각 되는 한국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29차시와 30차시에는 한국과 미국의 여러 미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토론 해 보았다. 그리고 “숫자 4를 싫어하고,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쓰지 않는 등” 대표적인 한국의 미신과 “13일의 금요일, 거울을 깨뜨리는 것 등”은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행운을 빌기 위해 “가운데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 위로 올려서 십자가를 만들기, 별뿔별을 보고 소망을 빌기 등”에 대한 미신에 대해 학습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LCI 문화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증과(표5), ISS에 대한 사전·사후 독립표본 t검증(표6, 표7)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실험반	사전	36	55.00	22.97	-9.59	.000*
	사후	36	67.27	20.66		
통제반	사전	36	54.56	23.85	-1.32	.196
	사후	36	56.30	24.24		

*p<.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와 사전검사를 비교했을 때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t=-9.59$, $p=.000$)를 보였고 통제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시 차이가 없었다($t=-1.32$, $p=.196$).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평균이 상승했지만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전평가 시 55점에서 사후평가 시 67.27점으로 약 12.27점의 상승을 보였고 통제집단은 사전평가 시 54.56점에서 사후평가 시 56.30점으로 약 1.74점의 상승을 보여주어 실험집단의 평균 향상도가 통제집단의 평균 향상도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6
1학기 ISS의 사전검사 독립표본 t검증 결과

항목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상호작용 참여	실험반	36	2.95	.54	-1.527	.131
	통제반	36	3.14	.51		
문화차이 존중	실험반	36	3.14	.46	-1.460	.149
	통제반	36	3.30	.48		
상호작용 자신감	실험반	36	2.73	.47	-.399	.691
	통제반	36	2.79	.69		
상호작용 향유	실험반	36	2.85	.61	.280	.780
	통제반	36	2.81	.50		
상호작용 주의	실험반	36	2.79	.57	-1.605	.113
	통제반	36	3.01	.60		

*p<.0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S의 사전검사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실험반과 통제반 사이에는 ISS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2학기 ISS의 사후검사 독립표본 t검증 결과

항목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상호작용 참여	실험반	36	3.86	.41	3.98	.000*
	통제반	36	3.33	.70		
문화차이 존중	실험반	36	4.01	.36	4.60	.000*

	통제반	36	3.48	.59		
상호작용 자신감	실험반	36	3.57	.60	3.63	.001*
	통제반	36	2.94	.84		
상호작용 향유	실험반	36	3.71	.64	3.73	.000*
	통제반	36	3.12	.69		
상호작용 주의	실험반	36	3.73	.48	3.96	.000*
	통제반	36	3.14	.74		

* $p < .0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S의 상호작용 참여(Interaction Engagement)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98, p=.000$). 그러므로 실험반 학생들은 LCI 문화수업 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기 전에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성향이 발달했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문화 사람들을 덜 회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화 사람들과 의사소통 시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언어나 비언어를 통해 보여주며 타 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었다.

실험반과 통제반을 비교하여 ISS의 문화차이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4.60, p=.000$).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실험반은 통제반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다른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존중하며 본인과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 문화도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ISS의 상호작용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ce) 요소 평균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3.63, p=.001$). 그러므로 실험반 학생들은 통제반 학생들보다 의사소통 시 더 자신감을 나타냈고 사교적임을 알 수 있다.

ISS의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점수 평균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3, p=.000$).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험반은 통제반보다 타 문화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적게 당황을 하고 쉽게 실망하지 않으며 의사소통의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SS의 상호작용 주의(Interaction Attentiveness) 영역 평균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3.96, p=.000$). 그리고 실험반 학생들은 통제반 학생들보다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시 주의가 더 깊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며, 의사소통 시 문화적으로 다른 상대방의 미묘한 의미에 대해서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LCI문화수업 후 실험반에 대한 학생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화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설문 1의 1, 2번 응답 81%), 교과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설문 2의 1, 2번 응답 83%), 교과서에 나오는 숙어나 속담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설문 3의 1, 2번 응답 89%).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였으며 (설문 4의 1,2번 응답 92%)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서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번 수업을 통해 영어권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설문 5의 1, 2번 응답 83%). LCI문화수업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다(설문 6의 1, 2번 응답 86%)고 답변을 했다. 도움을 받은 학습 분야는 읽기(42%), 말하기(25%), 듣기(19%), 쓰기(1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문화학습에서 더 배우고 싶은 주제는 여행, 관습, 의상, 입시제도 등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LCI 문화수업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며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도록 한다. 둘째, 한국문화와 외국문화(미국문화를 중심으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토론학습, 문화를 주제로 한 발표수업을 통하여 두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LCI 문화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문화간 감수성이 향상되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LCI 문화수업을 통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CBI의 주제중심모형 형태를 띠고 있는 LCI 문화수업 후 ISS 분석 결과 상호작용 참여 요소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반 학생들은 통제반 학생들보다 본인과 다른 문화에 대하여 보다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이 되었으며 다른 문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문화차이 존중 항목에서는 타 문화와 행동방식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상호작용 자신감 항목에서는 실험반 학생들이 통제반 학생들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타 문화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으며 상호작용 향유에서는 타 문화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덜 실망하고 이해심을 갖게 되었다. 상호작용

주의에서는 타 문화 사람들과 만날 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의 말이나 표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주의 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LCI 문화학습이 학생들에게 본인의 문화와 다른 타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더 개방적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적인 면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수업으로 학습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과 면접결과 학생들은 LCI 문화수업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언어와 관련된 문화를 더 배우고자 하는 학습동기를 갖게 되었으며 교과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태도, 이해도의 증가는 영어성적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방은정, 2006; 이효웅, 오준일, 2000; Hansen, 1981; Oller, Baca & Vigil, 1977)와도 일치하고 목표어의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목표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교육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Hendon, 1980; Seelye, 1994)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능력 향상, 내적 동기유발이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점수의 향상과 더불어 학력증진으로 이어졌으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교육이 성공하려면 문화와 언어를 분리하지 말고 문화 속에서 언어, 언어 속에서 문화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속한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며 외국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 하고 문화적 문자능력 습득을 위해 문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주는 홈페이지, 문화와 관련된 듣기.읽기.말하기.쓰기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널리 현장학교에 보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관련 자료를 개발 시 학생들의 수준(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LEP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학습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L2나 EFL로 배우는 많은 나라들의 문화에 대한 조사와 각 나라의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여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서로간의 문화 차이에 의해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며 올바르게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교실 안에서만 목표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EFL 상황에서는 영어 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 할 수 있도록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다양하게 고려한 지도 방안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문화와 언어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용구, 김종선. (2004).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영어어문교육*, 9(2), 71-90.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강은경, 문도식, 류애현, 염미선, Hass, J. L. (2011).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동아.
- 박아영. (2009).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용한 고등학교 영미 문화 교재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박은희. (2006).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미문화 이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방은정. (2006).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와 이해도가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점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담. (2007). *영미 문화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와 영어 능력 성취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도수. (2004).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영어교육. *The British &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0(2), 119-143.
- 이효웅, 오준일. (2000). 영어 학습 태도와 능력간의 상관관계. *영어교육*, 55(4), 389-409.
- 정호진. (2006). *영어학습과 문화이해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Anstey, M., & Bull, G. (1966). *The literacy labyrinth*. New York: Prentice Hall.
- Bennet, M. J. (1986).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raining for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2), 179-196.
- Celce-Murcia, M.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Boston, MA: Heinle & Heinle.
- Chen, G. M., & Starosta, W. J.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uman Communication*, 1, 1-16.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Damen, L. (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Fritz, W., Möllenberg, A., & Chen, G. M. (2002).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1*(2), 165-176.
- Garner, R. (1988).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 Hammer, M. R., & Bennett, M. J. (1998).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 manual*. Portland, 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stitute.
- Hansen, M. E. (1981). *Attitude,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 psycholinguistic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New Jersey.
- Hendon, U.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13*(3), 192-193.
- Hirsch, E. D. (1987).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Mifflin.
- Kim, K-J. (2003). *Examining the affective domain in college students'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motivation,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English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 & M University, UA.
- Kolb, A. (1984). *Experiment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H: Heinemann.
- Lado, R. (1964).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 Oller, W., Baca, L., & Vigil, P. F. (1977). Attitudes and attained proficiency in ESL: A sociolinguistic study of Mexican Americans. *TESOL Quarterly, 11*, 173-183.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pir, E. (1921).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 Seelye, H., N. (199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rd ed.).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 Tyler, E. B. (1871). *Primitive culture*. London: Murray.

부록 1

LCI 학습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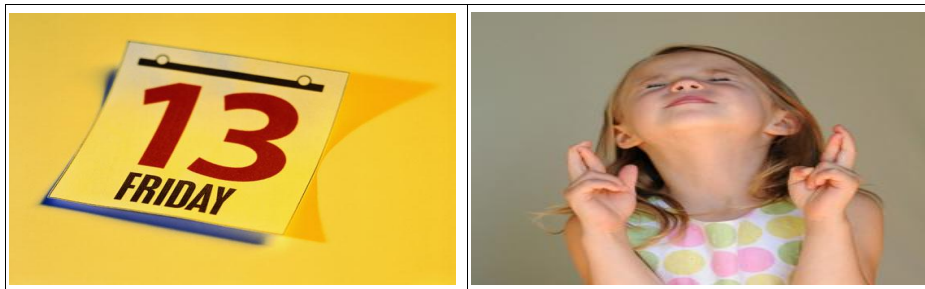
학년 반 번 이름:

Today's culture topic: Superstition

I. Quiz for motivation(Culture Trigger)

※ 다음 질문에 대해 옳은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T, 틀린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F를 쓰세요.

1. 미국에서는 13일과 금요일이 겹친 날을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
2. 미국에서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든다.()



II. Words or expressions related to today's culture (Culture Activity)

1. Reading material

"Keep your fingers crossed"

Student 1: Do you think we will be able to go on the field trip like we planned?

Student 2: I'm not sure. I heard that a hurricane might hit that area!

Student 1: I know. I'm so worried! Let's keep our fingers crossed!

When you say "keep your fingers crossed," you are hoping for a positive outcome.

In the above example, the students are planning to go on a trip together. However, they heard on the news that a hurricane might hit that area. One of the students says, "Let's keep our fingers crossed," which means that they are hoping a hurricane won't hit that area and that they will be able to go on the trip as planned!

2. Words related to culture

No.	Korean	English	No.	Korean	English
1	금요일		6	행운	
2	13번째		7	손가락	
3	미신		8	십자가	
4	미신적인		9	발음	

5	불행		10	죽음	
---	----	--	----	----	--

III. Discussion Topic (Culture Awareness)

1.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행운(Good fortune)과 관련된 미신은 무엇이 있을까?
2.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불운(Bad fortune)과 관련된 미신은 무엇이 있을까?

IV. Presentation of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ulture Sharing)

1.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신을 비교하여 공통점 발표하기
2.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신을 비교하여 차이점 발표하기

부록 2

LCI 문화수업 관련 설문지

본 설문은 LCI 문화수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솔직하게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의견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1. LCI 문화수업 후 각 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 LCI 문화수업 후 교과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3. LCI 문화수업 후 숙어나 속담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4. LCI 문화수업 후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상승하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5. LCI 문화수업 후 영어권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6. LCI 문화수업 후 영어의 4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7. 위 6번 문항 중 ①, ②를 선택했다면 다음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8. LCI 문화수업과 관련하여 더 다루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문화간 감수성 검사 (한국어판)

다음은 문화간 의사소통에 관한 진술입니다.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첫인상을 바탕으로 각 진술 앞의 빈칸에 여러분의 대답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5=매우 동의한다, 4=동의한다, 3=잘 모르겠다, 2=동의하지 않는다,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을 즐긴다.
2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생각을 한다.
3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4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항상 잘 알고 있다.
6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교적이 될 수 있다.
7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8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9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쉽게 당황한다.
10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자신감을 느낀다.
11	나는 문화적으로 뚜렷이 다른 상대에 대해서 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다른 문화에 대해서 쉽게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
12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쉽게 실망을 한다.
13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14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매우 주의 깊다.
15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무능하다고 느낀다.
16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존중한다.
17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18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9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문화적으로 뚜렷이 다른 상대방의 미묘한 의미에 대해서 민감하다.
20	나는 나의 문화가 다른 사람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때 나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2	나는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한다.
23	나는 문화적으로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언어(말)나 비언어(제스처)를 통해 상대방 말에 대한 나의 이해를 보여준다.
24	나는 나와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차이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을 갖고 있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배철웅

대전관저중학교

302-24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43

Tel: (042) 545-4669

Email: msubcw@yahoo.co.kr

강용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188

Email: ykahng@kongju.ac.kr

송해성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191

Email: songhs@kongju.ac.kr

Received 14 September 2012

Revised 13 November 2012

Accepted 17 November 2012